

[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] 공제사업 등 사업전략 논의

2020-11-07

조합원 회원사 확대 및 신시장 개척사업 역량 집중



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유수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제4차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하고 있다.

LPG충전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비롯해 프로판 공동구매,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사업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. 핵심기반사업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지원사업을 마련해 중장기 사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
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(이사장 유수륜)은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△조합사업계획 성공 추진을 위한 기반전략 △프로판 공동구매 및 판매 △세금환급 경쟁청구 △LPG용기 수입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.

우선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지난해 9월24일 통과된 후 내년 4월 시행함에 따라 유망분야 모델케이스를 발굴해 LPG충전업협동조합이 사업 수행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.

현재 74개 안팎인 조합 회원사를 내년에는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가스배상책임보험과 급

여, 건강보험과 산재 등 4대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한 매출액이 높은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면서 과다 지출된 세금을 환급받는 세금환급경정 청구자문컨설팅 서비스도 시작하며 노무·세무·법률지원 자문서비스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.

특히 국내 LPG신규수요 개척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판 공동구매사업을 모색하며 공공기관 입찰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회원사는 물론 조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.

이를 위해 LPG충전소를 인프라로 활용해 렌트카서비스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며 향후 전기차, 수소차 등으로 확대해 주차 및 반납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부당한 이유로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국세청에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세금환급경정청구컨설팅을 앤더슨컨설팅그룹과 LPG충전조합이 함께 진행해 회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한 공연사업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도모함으로써 LPG충전업협동조합 회원사와 조합이 함께 재정 안전성을 마련하고 사업 확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강구한다는 방침이다.

출처 : 투데이에너지 (<http://www.todayenergy.kr>)